

청소년의 환경적 위험과 자아탄력성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남 영 옥¹⁾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 혜 미²⁾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는 청소년의 생활에 밀접한 가족과 학교 및 또래의 환경적 위험과 개인의 심리적 적응유연성이라고 볼 수 있는 자아탄력성이 음주, 흡연, 폭력이라는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에서 표집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2,271명의 자료를 기초로 차이검증 및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들의 위험행동 발현정도는 음주(57.3%), 폭력(15.1%), 흡연(14.7%)의 순으로 나타났고, 성과 학년,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환경적 위험요인 중 청소년 위험행동 세 가지 모두에 공통적으로 영향력을 갖는 것은 학대경험과 또래동조압력으로 나타났다. 위험행동별로 보았을 때 음주는 가족불화, 학대경험, 또래동조압력이 높을수록, 친구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흡연은 학대경험, 학업스트레스, 또래동조압력이 높을수록, 친구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그리고 폭력행동은 가족불화와 학대경험, 또래동조압력이 높을수록 실행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탄력성은 가족, 학교 및 또래의 위험요인이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와 흡연, 폭력행동 모두에 보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청소년 위험행동, 환경적 위험, 자아탄력성

* 이 연구는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2004-042-B00114).

1) 주저자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mail : yonam@cu.ac.kr)

2) 교신저자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E-mail : cbuyhm@hanmail.net)

I. 서론

청소년기는 활력적이고 역동적인 시기인 동시에 인지적·사회적인 미숙성과 아동에서 성인으로의 전환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불확실한 지위에 처해 있으면서 친구관계, 진학이나 직업선택 등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요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여 다양한 위험행동이 나타나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음주, 흡연, 약물남용, 폭력행동, 가출, 위험 성행동 등을 청소년의 공통적인 위험행동으로 지적하고 있다(Juras, 2004). 주로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이러한 행동들은 적절한 예방적·치료적 개입이 없을 때 청소년을 위기상황에 처하게 만들거나 성인기의 문제로 발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생태학이론을 기반으로 한 보호요인-위험요인이라는 분석틀을 통해 청소년의 개인적 차이 뿐 아니라 사회환경적 맥락에서 여러 요인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분석할 수 있어 보다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Jessor, Donovan & Costa, 1991; Perkins & Jones, 2004).

위험행동은 적절한 개입이 없다면 문제행동으로 발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행동이다. 청소년 위험행동은 어떤 행동이 문제화하기 이전의,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행동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Gullone, Moore & Boyd, 2000). McWhirter 등(2004)은 위험행동을 문제행동처럼 분명하고 단일한 진단적 범주로서가 아니라 위기수준이라는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는 일련의 단계에서 볼 수 있는 행동으로 파악하였다.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

이 음주나 흡연을 하고 있지만 그들 모두를 문제청소년으로 보지는 않는다(윤혜미·남영옥, 2007). 그들 중에는 실험적 시도자도 있고, 습관화된 이용자도 있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개입은 위기수준에 따른 차별화가 필요하다. 위험행동이라는 개념이 유용한 이유는 문제행동의 첫 징조로 이해될 수 있는 행동의 범주들까지를 포함함으로써 위기가 도래하기 전에 차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위험행동을 Gullone 등(2000)의 분류에 따른 반항적 위험행동의 범주에 속하는 음주, 흡연, 폭력행동에 한정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서의 자아탄력성과 위험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위험요인이란 문제행동에 몰입될 기회를 증가시켜 위험행동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인 반면 보호요인은 긍정적인 개인적·사회적 특성 및 환경적 지지를 제공하여 청소년이 위험행동에 동조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요인들을 말한다. 그동안의 연구들이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밝히는데 집중해 왔다면(박현선, 1998; Juras, 2004) 근자에는 효과적인 예방과 개입방법 개발을 위해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보호요인을 강화한다는 시각에서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Kirby & Fraser, 1997).

청소년 위험행동에 대한 보호-위험요인은 개인특성뿐 아니라 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가족, 또래, 학교환경과 같은 복합적인 사회적 맥락에 공히 존재한다고 이해되어 왔다. 그런데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 개념간의 관계가 불분명해진다

지적에 따라(Masten, 2001) 개인적 요인은 보호 요인으로, 위험요인은 환경적 특성으로 한정하는 연구들이 늘고 있다(유성경·심혜원, 2002; Bonanno, 2004).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개인적 특성에는 자존감, 미래에 대한 낙관, 내적통제소재 등이 있는데, 특히 유사한 위험-보호요인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그 부정적 영향이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자아탄력성은 내·외적 긴장상황에 맞서 유연하고 풍부하게 적응할 수 있는 개인의 일반적인 능력(Klohn, 1996)으로 알려져 있다. 즉, 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역경 혹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행동적·정서적 문제를 보이지 않고, 개인이 환경의 요구에 따라 긴장을 인내하면서 자아통제수준을 조절하는 역동적 능력을 의미한다(Block & Block, 1980; Block & Kremen, 1996).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낮은 청소년들에 비해 스트레스를 덜 지각하고 더욱 효율적인 스트레스 대처전략들을 사용하며(고민숙, 2002; 권지은, 2003), 학교 생활에서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이윤주, 2004; 신윤자, 2005), 자아탄력성은 가정의 환경적 위험요인에 노출된 청소년의 적응에 보호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성경·심혜원, 2002). 그리고 높은 부모갈등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아탄력적인 청소년은 비탄력적인 청소년에 비해 경미한 수준의 스트레스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eighbors, Forehand, & McVicar, 1993). 이처럼 자아탄력성은 청소년들의 부적응에 보호적

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적 위험요인은 가족, 학교, 또래환경의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환경의 위험에서 빈곤은 청소년들을 열등감에 빠뜨리고 무기력하게 하며 정서적 불안정을 야기시킴으로써 공격적 행동으로 빠져들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본다(한상철 등, 2004). 빈곤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18년간의 종단연구(Egeland, Carlson, & Sroufe, 1993)에서는 빈곤 및 부모-자녀간의 부정적 관계가 청소년의 행동, 사회성, 정서, 학업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혔다. 경제적 위험뿐 아니라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학업 부적응과 정서 및 행동상의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arber & Egeland, 1987).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공격성과 충동적인 행동을 빈번하게 표출하게 되고, 문제해결수단으로 폭력을 더 많이 사용하며, 이러한 경험은 이들의 위험행동 감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Cerezo, 1998; 김정옥·장덕희, 1999), 또한 이들은 폭력을 모방하거나 폭력을 강화하고 보상하는 성향을 지니게 되어 친구들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할 위험성이 높다(김양희, 1998; Smith & Thornberry, 1995; 윤혜미·남영옥, 2007 재인용). 그리고 부부간 갈등이나 역기능적 부모-자녀관계, 강압적 자녀양육, 애정결핍 등으로 인한 가족불화는 청소년의 공격성과 비행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Patterson, 1982; Olweus, 1993), 국내의 연구에서도 가족갈등을 많이 경험할수록 청소년이 학교폭력 등의 위험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신, 2002; 이상균, 2005). 이처럼

럼 가족의 경제적 위험이나 학대경험, 가족불화는 청소년들의 위험행동에 주요 위험요인이 된다.

학교와 관련한 위험요인으로서는 학교 영역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들 수 있다. 특히 지나친 입시경쟁의 압박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는 학업스트레스와 교사스트레스가 주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중에서 학업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노혜숙, 1996), 학업 영역의 스트레스가 높은 청소년들은 문제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수주, 2002; 김현경, 2003). 청소년들은 학업스트레스 다음으로 교사에 대한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고 있으며, 교사스트레스가 높은 청소년들 또한 문제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주, 2002). 결국 학생과 교사간의 갈등이나 학생들에 대한 억압적이고 과도한 규제 등은 학생들에게 관리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유발시킴으로써 학교폭력 등의 위험행동이 야기될 수 있다(Harootunian & Apter, 1993).

청소년기에는 가족만큼이나 또래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 또래집단의 동조압력과 이들로 인한 스트레스는 청소년들의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행동을 함께 하도록 또래동조 압력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비행 등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도 증가하므로 동조압력은 청소년기 다양한 위험행동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Dielman et al., 1992).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또래들과 어울리는 청소년들은 폭력행동에 가담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Allen,

Weinberg & Hawkins, 1989; 이은희 · 공수자 · 이정숙, 2004 재인용), 또래압력은 음주와 흡연 등의 위험행동 감행에도 영향을 미친다(김용석 · 윤혜미, 2001). 이처럼 또래집단에 속해 있으면 또래집단의 행동에 동조하여 친구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 때문에 또래의 위험행동에 동참하기 쉽다(Diblasio, 1986). 뿐만 아니라 또래집단에 의한 거부 위협 또한 커다란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부적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Kupersmidt & Coie, 1990) 친구들로부터의 스트레스는 이들에게 주요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또래집단의 영향력은 청소년들이 위험행동에 개입하고 지속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정한 위험요인들은 독특하게도 특정한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보호요인들은 특정한 위험행동에 대해서 보호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특정한 위험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위험·보호요인 뿐 아니라 각 위험행동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기능이 청소년기의 모든 위험행동에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으므로 위험행동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자아탄력성의 효과를 따로 살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편 청소년의 위험행동들은 위험행동간에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 음주와 흡연, 음주와 폭력 등은 같은 특성을 가진 집단들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이에 위험행동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청소년들이 비교적 빈번하게 보여주는 위험행동들이 같이 연구되면서 각각의 행

동이 위험요인과 자아탄력성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 또래, 학교와 같은 환경적 위험들이 음주, 흡연, 폭력이라는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자아탄력성이 각각의 위험행동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아탄력성의 영향을 보여줌으로써 각각의 위험행동 예방을 위한 차별화된 개입방법의 개발에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이다.

II.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가 특정지역을 불균형하게 대표하는 것을 방지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2개의 광역시, 2개의 중소도시, 6개의 군 지역으로 구분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고등학교 표본은 인문계와 전문계¹⁾가 적절히 분포되도록 하였다.

2005년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결과를 토대로 2005년 7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본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과정은 연구자가 직접 각 학교를 접촉하여 담임교사의 협조를 구하고 연구자가 각 학

교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회수결과, 분석에 부적합한 응답을 제외한 총 2,271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측정도구

환경적 위험요인

경제적 위험. 청소년이 지각하는 경제적 수준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1=상류층'에서 '5=하류층'까지 5개 범주 1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위험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가족불화. Hudson(1997)의 척도인 IFR(Index of Family Relations)을 번역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사용하였다. IFR은 가족구성원간의 관계와 관련된 문제의 정도를 측정하도록 고안된 25개 문항의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관계에 문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 척도에서는 7점 리커트 척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응답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93으로 나타났다.

학대경험. Straus와 Gelles(1990)의 CTSPC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를 참고로 하여 정서학대(2문항), 신체학대(2문항), 방임(4문항) 등으로 이루어진 8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전혀 없다(0점)'에서 '주 1회 이상(4점)'의 5점 리커트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85로 나타났다.

1) 2007년 4월 12일 개정·공포 시행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실업계고가 전문계고로 명칭 변경됨.

학업스트레스. 최해림(1986)이 개발하였고, 이혜선(1990)이 수정하여 사용한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대응설문지를 사용하였다. 학교생활, 학업관련 어려움, 진로 고민 등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69로 나타났다.

교사스트레스. 한미현(1996)의 척도로 교사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나 어려움에 대하여 청소년이 지각하는 정도를 응답하도록 하며,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87로 나타났다.

또래동조압력. 남현미(1999)가 사용한 또래동조성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에 대한 동조압력은 어느 정도 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의견동조에 관한 2문항을 더 추가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의 행동이 비록 사회적 규범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동조압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87이었다.

친구스트레스. 최해림(1986)이 개발하였고, 이혜선(1990)이 수정하여 사용한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대응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친구관계의 어려움이나 친구와의 결별로 힘든 정도 등

을 묻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81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 Klohen(1996)이 개발한 CPI (California Personality Inventory) 척도를 박현진(199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감, 낙관적 태도, 분노조절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9개 문항이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90으로 나타났다.

위험행동. 음주, 흡연, 폭력행동의 3가지를 측정하였다. 음주행동은 평소 한 번에 마시는 음주량을 술의 종류에 해당하는 잔으로 환산하여 측정하였으며, 흡연행동은 지난 한 달 동안의 흡연량을 개피로 환산하여 측정하였다. 폭력행동은 현 중·고등학교 재학중에 금품갈취, 패싸움, 학교징계, 경찰서 동행 등의 횡수를 각각 측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위험행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위험행동에 대한 위험요인과 자아탄력성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위험행동의 경우 변수의 특성상 편차

가 심하기 때문에 선형회귀분석보다는 위험행동의 참여여부에 따른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고려할 수 있는 로지스틱회귀분석이 더 적절할 것이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표 1과 같이 남학생 1,089명(48.0 %)과 여학생 1,182명(52.0%)으로 전체 2,271명이었다. 학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이 380명(16.7%)이었고, 인문계 고등학생이 1,018명(44.0%), 전문계 고등학생이 873명(38.5

%)이었다. 학년에 따라서는 중학교 3학년이 380명(16.7%)이었고, 고등학교 1학년이 928명(40.8%), 2학년이 963명(42.5%)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N(%)	전체
성	남학생	1,089(48.0)	2,271
	여학생	1,182(52.0)	
학교급	중학교	380(16.7)	2,271
	인문계 고등학교	1,018(44.0)	
	전문계 고등학교	873(38.5)	
학년	중학교 3학년	380(16.7)	2,271
	고등학교 1학년	928(40.8)	
	고등학교 2학년	963(42.5)	

표 2.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위험행동 감행 여부(N=2,271)

전체 (N=2271)	성별(N=2271)		x ²	학년(N=2271)			x ²	전체 (N=1891)	학교급(N=1891)		x ²
	남 (N=1089)	여 (N=1182)		중3 (N=380)	고1 (N=928)	고2 (N=963)			인문계고 (N=1018)	전문계고 (N=873)	
음 주											
경험 (N=1302)	614(56.4)	688(58.2)	.771 (df=1)	148(11.4)	506(54.5)	648(67.3)	94.526*** (df=2)	경험 (N=1154)	590(58.0)	564(64.6)	8.733** (df=1)
비경험 (N=969)	475(43.6)	494(41.8)		232(61.1)	422(45.5)	315(32.7)		비경험 (N=737)	428(42.0)	309(35.4)	
흡 연											
경험 (N=334)	221(20.3)	113(9.6)	52.059*** (df=1)	20(5.3)	139(15.0)	175(18.2)	36.291*** (df=2)	경험 (N=314)	119(11.7)	195(22.3)	38.473** (df=1)
비경험 (N=1937)	868(79.7)	1069(90.4)		360(94.7)	789(85.0)	788(81.8)		비경험 (N=1577)	899(88.3)	678(77.7)	
폭 력											
경험 (N=344)	194(17.8)	150(12.7)	11.579*** (df=1)	38(10.0)	149(16.1)	157(16.3)	9.430** (df=2)	경험 (N=306)	151(14.8)	155(17.8)	2.958* (df=1)
비경험 (N=1927)	895(82.2)	1032(87.3)		342(90.0)	779(83.9)	806(83.7)		비경험 (N=1585)	867(85.2)	718(82.2)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위험행동

표 2는 세 가지 각 위험행동 감행 여부를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인 성, 학년, 학교급에 따라 분석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조사대상 청소년들 중 57.3%(1,302명)가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4.7%(334명)가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1%(344명)가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청소년들의 음주경험은 여학생(58.2%)이 남학생(56.4%)보다 조금 더 높은 분포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중학교 3학년이 11.4%, 고등학교 1학년이 54.5%, 고등학교 2학년이 67.3%로 학년이 높은 학생들의 음주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등학생의 학교급에 따르면 전문계 고등학생들이 64.6%로 인문계 학생들의 58.0%에 비해 음주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흡연경험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이 20.3%로 여학생의 9.6%에 비해 흡연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학년별로는 중학교 3학년이 5.3%, 고등학교 1학년이 15.0%, 고등학교 2학년이 18.2%로 학년이 높은 학생들의 흡연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등학생의 학교급에 따라서는 전문계 고등학생들(22.3%)이 인문계 학생들(11.7%)에 비해 흡연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청소년들의 폭력경험은 성별에 따라서 남학생이 17.8%로 여학생의 12.7%에 비해 통계적으로 더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중학교 3학년이 10.0%, 고등학교 1

학년이 16.1%, 고등학교 2학년이 16.3%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차이는 고등학생 학년간의 차이보다는 고등학생이 중학생 보다 높은 것에 기인한 차이로 추정된다. 그리고 고등학생의 학교급에 따라서는 전문계 고등학생들(17.8%)이 인문계 학생들(14.8%)에 비해 폭력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경험에서의 성별 차이를 제외한다면, 대체로 성과 학년, 학교급 모두 청소년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변수임을 말해준다. 먼저 성의 영향을 보면 음주를 제외한 흡연, 폭력의 경우 비율적으로 남학생들의 위험행동 감행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위험행동에 성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음주의 경우에는 여학생의 음주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음주가 여학생들에게도 급속하게 퍼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인문계 고등학생보다는 전문계 고등학생의 음주와 흡연, 폭력감행 경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환경적 위험요인과 자아탄력성이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각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학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간에 .5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친구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간에 .444, 가족불화와 학대경험간에 .406으로 나타났으며, 또래동조압력과 친구스트레스간에는 -.251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40 이하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다중공선성 및 회귀분석 검증에 문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위험요인과 자아탄력성이 청소년의 음주 행동에 미치는 영향

표 3은 위험요인과 자아탄력성이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계적으로 수행한 결과이다.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인 성과 학교급, 학년, 그리고 2단계에서는 환경적 위험요인을 투입하였고, 3단계에서는 자아탄력성을 투입하여 1단계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 통제변수로 투입된 성은 음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음주행위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인문계에 비해 전문계 고등학생일수록, 그리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음주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단계를 통제한 상태에서 2단계에 투입된 환경적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가족불화와 학대경험, 또래동조압력, 친구스트레스가 음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가족불화가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음주할 가능성은 1.18배 높아지고, 학대경험이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음주가능성은 1.27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위험요인과 자아탄력성이 청소년의 음주에 미치는 영향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B	Exp(B)	B	Exp(B)	B	Exp(B)
성	.075	1.078	.041	1.042	.027	1.027
학교급	.295**	1.343	.311**	1.365	.324**	1.383
학년	.555***	1.745	.538***	1.713	.554***	1.740
경제적 위험			.042	1.043	.082	1.085
가족불화			.166*	1.181	.235**	1.265
학대경험			.236**	1.267	.258**	1.294
학업스트레스			.138	1.148	.386***	1.471
교사스트레스			-.041	.960	-.082	.921
또래동조압력			.444***	1.559	.474***	1.606
친구스트레스			-.361***	.697	-.241**	.786
자아탄력성					-.691***	.501
분류율	61%		63.4%		64.4%	
-2 Log	2,485.609		2,399.895		2,366.507	
χ^2 (df)	43.157*** (3)		128.871*** (10)		162.259*** (11)	

* $p < .05$ ** $p < .01$ *** $p < .001$ 종속변수: 0=음주 비경험, 1=경험,

성별: 0=남학생, 1=여학생, 학교급: 0=인문계고, 1=전문계고

으며, 또래동조압력이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음주할 가능성은 1.56배, 친구스트레스가 한 단계 낮아질 때마다 음주가능성은 약 1.43(.697)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친구스트레스와 음주와의 관계가 부(-)적 관계로서 친구들로부터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청소년들이 음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또래동조압력이 음주와 정(+)적인 관계 그리고 상관분석에서 또래동조압력과 친구스트레스가 부(-)적인 관계로 나타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친구스트레스가 적다는 것은 이미 이들이 하나 이상의 또래집단에 받아들여져 있어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이 적다는 것인데 이처럼 또래집단에 속해 있으면 또래집단의 행동에 동조하여 친구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 때문에 또래의 위험행동에 동참하기 쉽다(Diblasio, 1986). 즉, 또래지향적인 청소년들이 친구스트레스가 적고 또래집단동일시 과정에서 위험행동인 음주에도 빈번히 관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위험요인들 중 또래동조압력(.444)이 상대적으로 음주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이런 추정을 뒷받침해준다. 결국, 청소년들이 음주하는 또래들에게 동조적 현상을 보이게 되면, 이들로부터의 압력은 낮아지게 되고, 또래들로부터의 압력과 스트레스 없이 음주에 동참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단계에서 투입된 자아탄력성은 1단계와 2단계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독립적으로 음주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이 한 단계씩 증가할 때마다 청소년이 음주할 가능성은 약 2(.501)배씩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단계

에서 투입된 변수들 중 자아탄력성(-.691)이 상대적으로 음주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환경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이 술을 마실 가능성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험요인과 자아탄력성이 청소년의 흡연 행동에 미치는 영향

표 4는 위험요인과 자아탄력성이 흡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계적으로 수행한 결과이다.

먼저 1단계에서 통제변수로 투입된 성과 학교급은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일수록, 인문계에 비해 전문계 고등학생일수록 흡연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단계를 통제한 상태에서 2단계에 투입된 환경적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학대경험과 학업스트레스, 또래동조압력, 친구스트레스가 흡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대경험이 한 단계 증가할 때마다 청소년의 음주가능성은 1.53배 높아지고, 학업스트레스가 한 단계 증가할 때마다 흡연가능성은 1.40배, 또래동조압력이 한 단계 증가할 때마다 흡연가능성은 1.32배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구스트레스가 한 단계씩 낮아질 때마다 흡연가능성은 약 1.38(.722)배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 또한 음주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흡연하는 또래들에게 동조적 현상을 보임으로써 이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흡연에 동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표 4. 위험요인과 자아탄력성이 청소년의 흡연에 미치는 영향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B	Exp(B)	B	Exp(B)	B	Exp(B)
성	-1.005***	.366	-1.071***	.343	-1.081***	.339
학교급	.951***	2.589	.960***	2.611	.968***	2.633
학년	.233	1.262	.207	1.229	.203	1.225
경제적 위험			-.056	.946	-.031	.970
가족불화			.156	1.168	.193	1.213
학대경험			.425***	1.530	.434***	1.544
학업스트레스			.331**	1.393	.455**	1.576
교사스트레스			-.139	.871	-.158	.854
또래동조압력			.275*	1.317	.286*	1.331
친구스트레스			-.325***	.722	-.262**	.770
자아탄력성					-.367*	.693
분류율	83.4%		83.6%		84.1%	
-2 Log	1,597.050		1,536.594		1,539.780	
χ^2 (df)	103.212*** (3)		163.668*** (10)		169.473*** (11)	

* $p < .05$ ** $p < .01$ *** $p < .001$ 종속변수: 0=음주 비경험, 1=경험,

성별: 0=남학생, 1=여학생, 학교급: 0=인문계고, 1=전문계고

위험요인들 중 학대경험(.425)이 상대적으로 흡연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투입된 자아탄력성은 1단계와 2단계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독립적으로 흡연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이 한 단계씩 증가할 때마다 청소년이 흡연할 가능성은 약 1.44(.693)배씩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자아탄력성은 여러 환경적 위험이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에서도 독립적으로 이들이 담배를 피울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단계에서 투입된 변수들 중 학업스트레스(.455)

가 상대적으로 흡연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요인과 자아탄력성이 청소년의 폭력 행동에 미치는 영향

표 5는 위험요인과 자아탄력성이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계적으로 수행한 결과이다.

먼저 1단계에서 통제변수로 투입된 성은 남학생일수록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과 학년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단계를 통제한 상태에서 2단계에 투입된 위험요인의 영향력은 가족불화와 학대

표 5. 위험요인과 자아탄력성이 청소년의 폭력에 미치는 영향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B	Exp(B)	B	Exp(B)	B	Exp(B)
성	-.376**	.687	-.466***	.628	-.474***	.622
학교급	.267*	1.306	.222	1.249	.228	1.256
학년	.007	1.007	-.061	.941	-.064	.938
경제적 위험			.057	1.058	.085	1.089
가족불화			.349**	1.418	.395***	1.484
학대경험			.312**	1.366	.320**	1.377
학업스트레스			.381**	1.464	.520***	1.682
교사스트레스			-.035	.966	-.061	.941
또래동조압력			.621***	1.861	.634***	1.885
친구스트레스			-.147	.863	-.076	.927
자아탄력성					-.408**	.665
분류율	83.8%		84.3%		84.1%	
-2 Log	1,662.396		1,566.955		1,559.549	
χ^2 (df)	11.797** (3)		107.239*** (10)		114.644*** (11)	

* $p < .05$ ** $p < .01$ *** $p < .001$ 종속변수: 0=음주 비경험, 1=경험

성별: 0=남학생, 1=여학생, 학교급: 0=인문계고, 1=전문계고

경험, 학업스트레스, 또래동조압력이 폭력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가족불화가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청소년이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1.42배 높아지고, 학대경험이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폭력가능성은 1.37배, 학업스트레스가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폭력가능성은 1.46배, 또래동조압력이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폭력행동을 할 가능성은 1.86배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위험요인들 중 또래동조압력(.621)이 상대적으로 폭력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단계에서 투입된 자아탄력성은 1단계와 2단계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독립

적으로 폭력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이 한 단계씩 증가할 때마다 청소년이 폭력행동을 할 가능성은 약 1.50(.665)배씩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청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아탄력성은 독립적으로 청소년들이 폭력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단계에서 투입된 변수들 중 또래동조압력(.634)이 상대적으로 폭력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학대경험과 또래동조압력은 음주와 흡연, 폭력행동 모두에 연관되

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행동상의 문제를 보인다고 보고한 Farber와 Eaceland (198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이 폭력 사용에 대해 보다 허용적이며, 문제해결수단으로서 폭력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들(Cerezo, 1998; 김정옥·장덕희, 1999), 그리고 이들은 폭력을 모방하거나 폭력을 강화, 보상하는 성향을 지니게 되어 친구들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할 위험이 높다는 연구들(김양희, 1998; Smith & Thornberry, 1995)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흡연은 음주와는 다르게 숨어서 실행에 옮긴다 하더라도 그 냄새 때문에 쉽게 알려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흡연행동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도한다는 것은 학대경험 청소년들이 일탈의 욕구가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추정케 한다.

특히, 또래동조압력은 음주와 폭력행동에 대해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음주와 흡연, 폭력행동 모두에서 공통적인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음주와 흡연 등의 위험행동 감행이 청소년기의 발달특성인 또래압력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들(김용석·윤혜미, 2001)이 뒷받침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나 학교폭력과 같은 폭력행동이 우리나라 청소년 위험행동 중 가장 보편적이고 심각하게 나타나는 행동이면서 동시에 다른 위험행동으로 이행해가는 경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연결지어보면 음주예방교육과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접근에서 청소년기 또래동조압력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접근이 중요함을 시사

해 준다 할 것이다.

그리고 자아탄력성은 음주와 흡연, 폭력행동 모두에서 위험요인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위험행동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위험요인들로부터 필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지만 결과는 이러한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아통제력을 높여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모두 비탄력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연구들(Rutter, 1979; Werner, 1989)의 논의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오히려 역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쳐 개인의 심리적 유연성이 증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음주 및 흡연, 폭력이 낮아진다는 결과는 위험행동과 관련된 청소년의 문제청소년화를 예방하는데 개인의 심리적 유연성과 강점이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가를 대변해준다.

I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2,271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음주와 흡연, 폭력의 위험행동에 가담하는 실태와 가족, 학교, 또래와 같은 환경내의 위험요인들이 위험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위험요인의 영향하에서 자아탄력성이라는 보호요인이 각각의 위험행동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들의 위험행동 발현 정도는 음주(57.3%), 폭력(15.1%), 흡연(14.7%)의 순으로 나타났고, 흡연과 폭력에서는 남학생

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였으나 음주 경험에서는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 음주관련 연구에서 여자청소년의 음주 증가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도 여자청소년의 음주비율이 58.2%나 되어 여자청소년의 음주에 대한 금기의식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학년이 높을수록, 인문계보다 전문계 고등학생의 음주와 흡연, 폭력행동이 유의하게 높았다. 청소년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위험요인 중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영향력을 갖는 것은 학대경험과 또래동조압력으로 나타났다. 위험행동별로 보았을 때 음주는 가족불화와 학대경험, 또래동조압력이 높을수록, 친구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흡연은 학대경험과 학업스트레스, 또래동조압력이 높을수록, 친구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그리고 폭력행동은 가족불화와 학대경험, 학업스트레스, 또래동조압력이 높을수록 실행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탄력성은 가족, 학교 및 또래의 위험요인이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와 흡연, 폭력행동 모두에 보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위험행동은 가족, 학교 및 또래환경의 위험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험행동의 구체적 내용(음주, 흡연, 폭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자아탄력성은 음주와 흡연, 폭력 모두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음주와 폭력행동에는 또래동조압력이라는 또래요인이, 흡연에는 학업스트레스라는 학교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대

한 예방적 접근이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하겠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청소년 위험행동에 대한 위험요인의 영향력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보호요인으로서의 자아탄력성이 다양한 환경적 위험요인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위험행동과의 관계에서 보호적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환경적 위험의 극복가능성을 밝히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위험행동을 하는 청소년이 한 가지 위험행동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음을 감안하여 위험행동들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족, 학교, 또래환경의 위험요인과 자아탄력성의 효과를 동시에 파악함으로써 종합적 시각을 유지하려 하였다.

실천적으로는 위험행동별로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 예방적 접근을 할 때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는 함의를 가진다. 예를 들면 여학생 음주자가 급증하고 있어, 음주예방교육은 특히 여학생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급과 학년에 따른 차이가 음주와 흡연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것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러한 반항적 위험행동을 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청소년보호법을 비롯한 사회적 보호체계가 청소년에 대한 유해물질 판매와 같은 위반사항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또 흡연에 비해 음주가 상대적으로 청소년에게 보편화된 것은 성인사회의 음주에 대한 관대한 태도가 청소년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 금기의식이 약하며 금연학교 등 프로그램을 공격

적으로 실시하는 흡연청소년에 대한 개입에 비해 예방적 개입도 미비함을 알려준다. 음주가 흡연, 약물남용 등의 경로약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의 지적들을 상기할 때, 그리고 음주행동은 일단 시작되면 성인기로의 지속적 이행이 강하며 다른 정신보건 문제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특징을 생각할 때 학교차원의 예방프로그램 확산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모든 위험행동에 학대경험과 또래동조압력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청소년의 경우가족환경 중에서도 가정의 소득경도와 같은 외부적 특성보다 내부적 특성인 갈등관계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특히 갈등의 극단적 형태인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갖는 파괴력은 위험행동 예방에는 무엇보다도 부모-자녀간 관계의 건강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래동조압력의 영향력은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의 하나인 또래압력이 특히 부정적 특징을 지닌 또래와의 관계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어 또래압력 대처를 포함한 사회기술훈련이 위험행동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함을 알려준다.

자아탄력성이 음주와 흡연, 폭력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개인의 심리적 유연성의 강화가 음주나 흡연, 폭력과 같은 시험적이고 비교적 보편적인 위험행동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어, 개인의 심리적 역량강화가 기본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고민숙 (2002). 자아탄력성, 의사결정 유형 및 성패귀인 유형과의 관계: 애착유형과 생활스트레스를 포함하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지은 (2003). 부모 및 또래 애착, 문제해결방식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주 (2001). 중·고등학생의 학교 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양희 (1998). 부부간 폭력과 가정생활 및 청소년. 가정폭력과 청소년. 청소년보호위원회.
- 김용석, 윤혜미 (2001). 중학생들의 음주기대와 음주기대 관련요인. 한국사회복지학, 44, 91-116.
- 김정옥, 장덕희 (1999). 가정폭력이 청소년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153-186.
- 김현경 (2003). 고교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 방식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현미 (1999).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가족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혜숙 (1986). 일부 여자 중학생의 자아개념 및 스트레스와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현진 (1996). 자아탄력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윤자 (2005).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성경, 심혜원 (2002). 적응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16(4), 189-206.
- 윤혜미, 남영옥 (2007). 청소년 위험행동 관련 요인: 심리정서적 특성의 매개경로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3, 127-153
- 이상균 (2005). 청소년의 또래폭력 가해경험에 대한 생태체계적 영향요인. *한국아동복지학*, 19, 141-170.
- 이명신 (2002). 괴롭힘 가해자의 환경적 요인, 괴롭힘 행동유형, 가해자의 심리·행동적 결과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1, 29-61.
- 이윤주 (2004). 초등학교의 자아탄력성과 부모 갈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급생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5(2), 435-449.
- 이은희, 공수자, 이정숙 (2004). 청소년들의 가정, 학교, 지역의 심리사회적 환경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분노조절과 비행친구 접촉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123-145.
- 이혜선 (1990).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현황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교육연구소, 교육논총* 5, 37-80.
-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상철, 김혜원, 설인자, 임영식, 조아미 (2004). 청소년 문제행동 - 심리학적 접근 -. 서울: 학지사.
- Block, J., & Block, J. H. (1980). *The California Child Q-set*.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1969).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Bonanno, G. A. (2004). Loss, trauma and human resilience: Have we understand the human capacity to thrive after extremely aversive event?. *American Psychologist*, 59, 20-28.
- Cerezo, M. A. (1998). Parent-child abuse. pp.17-40 in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on family violence*. edited by R. C. A. Klein, New York: Routledge.
- Diblasio, F. (1986). Drinking adolescents on the roa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 15, 173-188.
- Dielman, T., Schullenberg, J., Leech, S., & Shope, J. T. (1992). *Reduction of susceptibility to peer pressure and alcohol use/misuse through a school-based prevention program*.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Adolescence, Washington, DC.
- Egeland, B., Carlson, E., & Sroufe, L. A. (1993). Resilience as proces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517-528.
- Farber, E., & Egeland, B. (1987). *Abused children: Can they be invulnerable*. pp.253-288 in *The Invulnerable Child*, edited by J. Anthony and B. Cohler. New York: Guilford Press.

- Gullone, E., Moore, S. M. S., & Boyd, C. P. (2000). The Adolescent Risk-Taking Questionnaire(ARQ):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5, 231-250.
- Harootunian, B., & Apter, S. J. (1993). Violence in school In A. P. Godlstein(Ed.), *Youth Violence*. 120-139. Elmsford, NY: Pergamon press.
- Hudson, W. W. (1997). Index of Family Relations (IFR). in Corcoran, K. & Fischer, J. 2000. *Measures for Clinical Practice: a Source Book*. 3rd ed. New York: The Free Press. 379-381.
- Jessor, R., Donovan, J. E., & Costa, F. M. (1991). *Beyond adolescence: Problem behavior and young adult develop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uras, J. L. (2004). Integrating models of risk and protection for the prevention of adolescent delinquency. *Developmental psychology*, 176.
- Kirby, L. D., & Fraser, M. W. (1997).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In M. W. Fraser(Ed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Washington D.C.:NASW Press.
- Kloh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1067-1079.
- Kupersmidt, J., & Coie, J. (1990). Pre-adolescent peer status,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as predictors of externalising problem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 1350-1362.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 227-238.
- McWirtter, J., McWhirter, B. T., McWhirter, E. H., & McWhirter, R. J. (2004). *At-risk youth: a comprehensive response*. Brooks and Cole.
- Neighbors, B., R. Forehand, and D. McVicar. (1993). Resilient adolescents and interparental confli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3(3), 462-471.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Cambridge, MA: Black-well.
- Patterson, G. R. (1982). *Coercive family process*. Eugene, OR: Castalia.
- Perkins, D. F., & Jones, K. R. (2004). Risk behaviors and resiliency within physically abused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s*, 28, 547-563.
- Rutter, M. (1979). *Protective factors in children's responses to stress and disadvantage*, 49-74 in Primary Prevention of Psychopathology: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Vol. 3 edited by M. W. Kent and J. E. Rolf . Hanover, NH: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 Smith, C., & Thornberry, T. P. (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maltreatment and adolescent involvement in delinquency. *Criminology*, 33, 451-477.
- Straus, M. A., & Gelles, R. J. (1990).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Risk Factors and Adaptations to Violence in 8,145 Families*.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Werner, E. E. (1989). High risk children in young adulthood: A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32 year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 72-81.

1 차원고접수 : 2007. 04. 01.

수정원고접수 : 2007. 05. 27.

최종게재결정 : 2007. 06. 01.

Influence of Environmental Risk Factors and Ego-resiliency on Adolescents' Risk Behaviors

Nam, Young-Ok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Yoon, Hye-mee

Departmen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environmental risk factors and ego-resiliency on adolescents' risk behaviors such as drinking, smoking and violence. The categories of potential risk factors were family, school and peer factors; the high level of ego-resiliency was expected to reduce engagement in risk behaviors. In 2005, 2,271 9th~11th graders of four urban and two rural regions across the country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results revealed difference in levels and types of risk and protective behaviors within socio-demographic groups. Family conflict and peer group characteristics had effect on all three risk behaviors. Effects of predictors on each risk behaviors varied; peer group characteristics were the most significant on drinking and violent behavior; Abuse experience was on smoking.

Key words : risk behavior, environmental risk factors, ego-resiliency